

# “졸업은 기쁘지만 취업 생각하면 막막해요”

대학 학위수여식에서 만난 졸업생들 '설렘 반 걱정 반'

### 고물가에 취업 준비도 부담... 뭘 해야할지 걱정되지만 자격증 따고 인턴 경험 쌓고 대학원 진학·여행 계획도

졸업 시즌을 맞은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가족, 친구, 친구 등 주변의 축하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극심한 취업난 때문이다. 그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취업을 유예하기도 했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졸업유예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취업을 못한 광주지역 졸업생들은 자기계발과 대학원 진학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6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는 이날, 조선대와 호남대는 지난 23일 각각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는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졸업식을 치렀다.

이날 전남대 캠퍼스에서 만난 졸업생들은 졸업이 기쁘지만, 한편으론 가슴앓이가 무겁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문을 넘지 못해 졸업식이 끝난 다음날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한 김가나(여·23)씨는 당장 취업보다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여유를 갖고 고민해볼 계획이 있다.

김씨는 “막상 졸업식을 마치고 나니 취업이라는 현실과 마주한 것 같아 부담감이 느껴진다”며 “서비스 직종만으로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폭이 좁다고 생각해 시간을 갖고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취업난 때문에 그동안 휴학을 이어온 학생들은 더 다급한 심정이다.

전남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안은상(30)씨는 “졸업이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되고 막막하기도 하다”며 “후학하고 공부해 취직한 동기들을 보면 뒤처진다는 생각도 든다. 졸업하면 더이상 학생 신분이라



김지혜씨 유연주씨 무기리나씨 안은상씨 박은비씨

안인 만큼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했다.

취업난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던 졸업유예를 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수강료를 내고 학교로 통학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니, 졸업 유예보다는 인턴제도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기계발과 취업준비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전남대에서 졸업유예를 선택한 학생수는 지난 2019년 657명에 달했지만 2020년 472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60명 까지 감소했다. 조선대도 지난 2019년 436명에 달했던 졸업유예생들이 지난해 213명으로 줄었다.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를 졸업한 김지혜(여·

24)씨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친구들과 3주간 프랑스와 영국, 헝가리 등 서유럽 지역을 여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문화재단 청년 인턴을 도전할 계획이다.

전남대 미술학과 유연주(여·24)씨도 취업 준비는 잠시 미뤄두고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 1년 가량 일본에 머물며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목표다. 취업 부담도 있지만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취업까지 도전해보겠다는 것이 유씨의 설명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대학원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기리나(27·전남대 정치

외교학과)씨는 “대학원에서 고향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 등 정치외교학을 깊이 배워보고 싶다”며 “졸업해도 계속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완전히 떠나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웃어보였다.

전남대 생명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강여명(여·25)씨도 “유니스트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합격해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석·박사 통합이라 기간이 꽤 길지만 더 많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비늘구멍과 같은 취업구멍을 뚫은 학생들의 고민도 깊다.

광주교대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연주(여·23)씨는 최근 1년간 준비한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걱정으로 슬기롭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날마다 고민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 취업한 박은비(여·24·전남대 철학과)씨도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당장 3월에 첫 출근인데 긴장된다”고 토로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반갑다! 파란 하늘  
연일 내리던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을 보던 2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사직타워에서 바라본 광주도심의 시야가 맑다. /김진수 기자 jeans@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대상자 모집

### 1년간 2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1년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이자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현재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1차 대상자를 모집해 총 9만 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신청은 복지포털(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직장 내 갑질’ 간부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직장 내 갑질로 직원들의 반발을 샀던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징계위원회는 최근 남구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남구 감사담당관은 지난 8일 광주시 징계위원회

회에 의견을 요청했고 직위해제 상태였던 A과장은 징계의결에 따라 23일부터 정직 처리됐다.

한편 A과장은 지난달 4일 남구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A과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

## 북광주우체국 안전사고 많은 이유 있었네

###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의원 참석 않고 대리 서명 논란

북광주우체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가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음에도 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대리 서명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북광주우체국지부에 따르면 북광주우체국 산보위에서 2020년부터 3년간 산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한 대리서명이 이뤄졌다. 산보위는 우정사업본부가 꾸리며 우체국 노사측 위원 10여명이 참여한다.

대리서명은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며 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산보위도 대리 사인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산보위에서 특정인이 불참자들을 대신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분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사인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산보위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이로 인해 북광주우체국의 안전사고는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방우정청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북광주 우체국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목포·광양이 각 8건, 여수가 7건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북광주우체국지부는 이날 광주시 북구 북광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보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피어나다 남원

##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 새로운 가치로 피어납니다

**202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